

시끌벅적 e-스타



대선 후보들 '담덕 리더십' 배워라

5년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대선 열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선 관련 동영상이나 토론장을 찾아 댓글을 올리는 네티즌들도 많지 않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인기 TV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짧은 공개...

이렇게 만들어진 '담덕 리더십' 배워라 대사는 자신을 향해 칼을 들었던 역적들에게 '그들도 나의 백성들이다'라고 한 대사 등을 거론하며 원하는 대통령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통령상을 보자. 우선 '인재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지켜주고 언제나 자신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닌 대통령', '자신의 결정으로 수하들이 희생당할까 걱정과 번민으로...

나의승의 음·악·산·책

지난 화요일 아주 짧은 시간동안 이었지만 눈이 왔다. 첫 눈이었는지 아닌지 알지 못했다. 다만 "이제 겨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의 모던 발레를 위해 만든 어진 작품이다. 필자의 개인적 시간은 그때 80년대가 저물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2007년이 시간을 재촉하고 있는 지금, 컴퓨터를 이용한 무한의 복제...

첫눈 맞으며 듣고 싶다... 존 서만의 '프라이빗 시티'

의 음악에는 지금 들어도 그 때처럼 겨울바람 소리가 섞여 들려온다. 지금처럼 그 때 눈 내렸다. 배고픈 스무살, 그렇지만 배가 고파서 배고픈 것은 아니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도 아니었다. 후미진 골목 남의 집 차고고를 빌려서 수입 음반 도매상을 오픈했던 C무역, 어렵게 찾아가서 만난 몇 장의 CD 중에는 존 서만(john surman)의 프라이빗 시티(private city)가 있었다. 그 때는 비디오가 라디오스타를 죽이는(video kill the radio star) 시대, 정치가 예술을 숨죽이게 하거나 아니면 아무렇게 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당당했던 비굴했던 상관없이, 그들을 고스란히 담은 채로 무대 위의 모든 예술은 영원히 존재한다.

나치게 왜소하게 느끼게 하는 사진은 우주 탐사선 디스커버리호가 태양계의 끝에서 지구를 찍어 보낸 사진이 아닐까. 사진 밑에 적힌 글은 "저 작은 점, 저것이 지구다." 그것 뿐이었다. 그 사진을 목격할 필자의 지인은 "말없이 살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다. 겸손해 지는 것이었을까. '존 서만의 '프라이빗 시티'에 나오는 보석 같은 음악은 머릿곡 'Portrait of Romantic' 일 것이다.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고작 '낭만적'이라는 말 외에는 바꿀게 없는 것일까. 베이스 클라리넷의 매력은 너무 낭만적으로 느껴 볼 수 있는 곡이다. 그래서 광장의 작은 점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의 머리 위로 첫눈이 내릴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음악 듣다가 당신의 머리 위에도 문득 첫눈 같은 몇 송이의 눈발이 반갑게 내리기를, 그리하여 친구여 혹시 나를 옥하러거든 '저 첫눈 같은 눈'이라고 말할 것만 같은 시인의 마음이 되기를. <음악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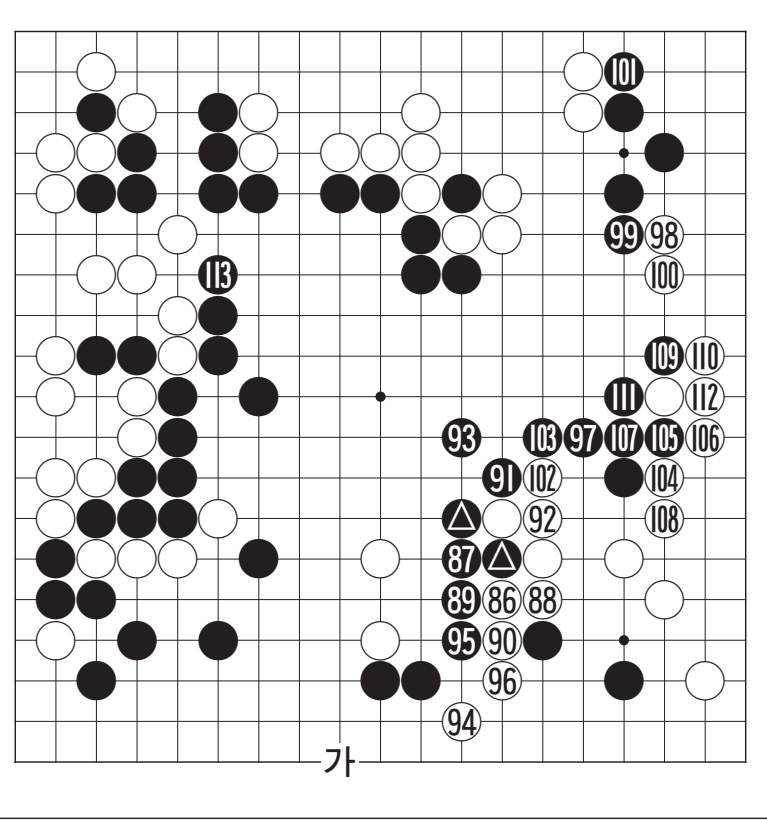
뉴스퀴즈

92. '13월의 보너스'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빠졌습니다. 국제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골프 접대비 ②보험료 ③신용카드 ④교육비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처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6일(음 10월 27일 甲戌)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88회 전국체전 울며 겨자먹기식 타협 6보(86~113) 여성 일반부 결승전. 흑 ▲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백 96까지의 바뀔거리는 필연적이다. 물론 흑은 좀 더 이득을 볼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도 승리는 결정되었다는 계산이고, 백은 이렇게 참아야 끝내기에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꿈을 살릴 수 있다. 흑 95는 '참고도'처럼 흑 1로 나가 3으로 끊어두고 5에 두는 것이 백으로 부터 '가'로 달리는 비마 끝내기를 방지해 이득이다. 조경진 5단 승리를 확신한 듯 113까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를 해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박영훈, GS칼텍스배 첫승. 박영훈 9단이 5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2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5번기 3국에서 이세돌 9단을 213수 끝에 흑 불계로 제압했다. 박영훈 9단이 상변 흑을 버리고 중앙을 크게 싸우는 바뀔거리를 결행하자 둘을 겨루었다. 4국은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우승상금은 5천만원이며 제한시간은 각 3시간 60초 초읽기 5회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Table with 4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nglish (What is the room rate?), Japanese (本当にお世話になりました), Chinese (有没有?), and Korean (亂臣賊子). Each column includes a question, a sample dialogue, and the correct answer.